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강화 방안

수행과제명 :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 김혜영 연구위원

Tel: 02-3156-7139, e-mail: khyoung222@kwidimail.re.kr

요 약

결혼의 지체 및 출산연기, 이혼이나 독신인구의 증가와 같은 다양한 삶의 방식과 비정형 가족이 증가하면서, 한국사회는 급속한 가족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적 편견이나 가족주의적 전통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한 편견과 모순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미혼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것임. 한국의 미혼모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추론될 뿐만 아니라 호주제 폐지 등과 같은 법제도의 개선과 실질적인 여성지위의 상승으로 결혼여부와는 별개로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이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미혼모의 발생원인과 경로를 살펴보고, 미혼모의 특성과 함께 이들이 미혼모의 삶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 출산후 양육과 입양의 기로에서 미혼모들이 양육을 선택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이고 이러한 선택이 미혼모들의 생활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음. 또한 점차 다양해지는 미혼모의 특성과 이에 따른 지원육구분석을 통해 미혼모의 사회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미혼모는 점차 저연령화됨에 따라 10대 미혼모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본 조사대상자의 경우에도 10대(19세 이하) 미혼모의 비중은 3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가운데 학생신분의 청소년 미혼모들이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한 미혼모는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청소년 미혼모들은 임신과 더불어 주위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스스로가 자퇴하거나, 이미 학업포기자 가운데 임신한 경우 또는 임신사실을 선생님에게 알린 뒤에 자퇴를 권고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일부의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나 보건 혹은 상담선생님의 배려로 학업을 계속하는 등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학교당국의 대응방침은 교사의 개인적 특성이나 미혼모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혹은 학교분위기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2. 정책의 추진방향

- 학생의 신분으로 임신한 여학생들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지침의 작성 및 운영
- 학생들의 임신 및 출산 등의 문제예방과 적극적 상담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1학교 학교복지사, 상담인력 1인 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인력배치
- 교칙에 따른 처벌보다는 학업지속 의사에 따라 학생의 학업권이 우선한다는 원칙의 수립과 관련 협조지침의 명문화
- 학교운영상의 문제로 학생을 동일학교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적을 유지하면서 위탁학교 등의 대안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이 해당학교장의 의무사항으로 공시

3. 정책효과

- 학업중단으로 인한 청소년미혼모들의 빈곤유입 경로 차단
- 학업지속을 통한 청소년들의 진로개발 및 성장잠재력 배양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관계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